

王安石과 蘇軾의 정치와 문학*

吳憲必**

<目 次>

1. 緒論
2. 王安石과 蘇軾의 정치 대립
3. 王安石과 蘇軾의 문학 교류
4. 結論

1. 緒論

王安石과 蘇軾은 北宋代에 政界와 文壇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두 사람은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선후배로서¹⁾ 교류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개혁파와 보수파로서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띠었다. 개혁파인 王安石은 神宗의 知遇를 받아 宰相의 신분으로 財政의 개혁과 文教政策의 革新, 國防政策의 刷新을 제창하며 新法이라는 개혁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정책에 대하여 기득권층인 보수파의 領袖 司馬光의 반대가 가장 거세었고, 蘇軾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였다. 王安石과 蘇軾의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은 '烏臺詩案'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烏臺詩案'은 蘇軾의 詩文이 新法을 풍자하고, 조정을 우롱하고, 황제를 비판하였다는 구실로 蘇軾이 탄핵되어 구금되었던 사건이다. 新法 정책을 비판한 詩文이 증거로 제시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蘇軾은 黃州團練副使로 貶謫되었다. 이 후에도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惠州·儋州·海南島 등으

* 본 연구는 2008년도 덕성여자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王安石(1021~1086)이 蘇軾(1036~1101)보다 15세 연상이었음.

로 유배생활을 하게 된다. 蘇軾은 新法에 대하여 新法이 여론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함으로 인하여 많은 폐단을 낳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新法 정책에 대하여 表狀 禮制·書信·詩文 등을 통하여 직설적으로, 또는 풍자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렇다고 蘇軾이 新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新法 정책이 일부 성공을 거둔 시점에서는 新法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北宋 당시 보수와 개혁의 대립 구도 하에서 치열한 黨爭으로 인하여, 王安石의 개혁 정책에 대하여 보수파인 蘇軾의 비판은 강도가 높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 양인은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지만, 王安石이 晩年에 政界를 떠나 金陵에 은거한 이후로는 文壇의 선후배로서 서로 왕래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蘇軾은 元豐 7년(48세), 黃州에 貶謫되어 있다가 汝州團練副使로 진출하던 도중 金陵에서 王安石(64세)을 만나서, 같이 鍾山을 거닐면서 唱和하기도 하고, 서로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해후의 정을 나누었다. 심지어 王安石이 蘇軾에게 金陵에서 이웃하여 살자고 제안할 정도로, 이 시기에 양인은 정치적 대립 관계를 떠나 知友로서 화해의 정을 회복하였다.

본 논문은 王安石과 蘇軾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립하였으며, 문학적인 교류의 양상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양인의 表狀禮制·書信·詩文 특히 詩文 작품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王安石과 蘇軾의 정치 대립

이 절에서는 개혁성향이 강한 王安石과 보수성향이 강한 蘇軾의 정치적 대립 양상을 역사 문헌과 그들의 시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神宗 熙寧 元年, 王安石은 〈本朝百年無事筭子〉²⁾를 올려 官界의 腐敗, 인재 선 발과 양성의 문제점, 財政의 破綻, 비조직적인 군사 제도, 빈곤의 보편화 현상 등

2) 李之亮 箋注, 《王荊公文集箋注》, 巴蜀書社, 2005, pp.135-138. * 이하 箋注者, 出版社, 出版年度는 생략함.

심각한 사회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개혁의 필요성과 時急性을 강조하였다.

本朝는 대대로 末俗의 폐단을 답습하여 도리어 친척, 친우와 大臣들의 의론 비평이 없었습니다. 임금께서 조석으로 더불어 있는 사람은 宦官과 궁녀에 불과하고, 조정에 나가서서 政事를 보심도 또한 有關機關의 조그만 일에 불과했으며, 아직까지 古代의 큰 업적을 남기신 임금같이 學士, 大夫들과 더불어 先王의 法을 토론하여 천하에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연 理致의 形勢에 맡겨 주관적인 運用은 발휘된 바가 없으며, 名實 사이를 고찰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君子가 중시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小人 또한 그 사이에 섞일 수가 있었습니다. 正論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邪說 또한 때때로 채용되었습니다. 詩賦와 暗誦으로 천하의 인사를 선발하였지만, 학교에서 양성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課名과 경력으로 조정 官位를 按排하였으나, 정부에서 관리를 심사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監察 機關에는 감찰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邊方의 장수도 선발된 인재가 아닙니다. (관리의) 이동이 심하여 考課를 매기기가 어려웠지만,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진실을 어지럽혔습니다. 私的으로 결탁하여 名聲을 넓히려는 자는 대부분 高官大爵을 얻었지만, 홀로 서서 직무에 충실한 자는 때때로 배척되고 꺾이었습니다. 그러므로 上下 官吏가 나태하여 비위를 맞출 따름이었고, 비록 능력있는 자가 관직에 있다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농민은 繇役 때문에 塗炭에 빠졌지만, 특히 救恤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여 農田水利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중에는 노쇠한 자들이 섞여 있어서 훈련대로 훈련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능력있는 장군을 선발하여 장기간 변방을 지키는 권한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禁衛軍에는 믿을 수 없는 병사들이 모여 있어서 五代의 姑息의 이고 엄매인 습속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 그 理財에 대해서는 대부분 法度가 없었기 때문에 비록 절약하였지만, 백성들은 부유하지 못하였고 비록 나라를 걱정하고 열심히 일하였다 하더라도 나라는 強盛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夷狄이 猖獗한 때가 아니고 또 堯, 湯 시대와 같은 水旱의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천하가 無事하여 백년을 넘게 지냈습니다.³⁾

3) 本朝累世因循末俗之弊, 而無親友群臣之議. 人君朝夕與處, 不過宦官女子, 出而視事, 又不過有司之細故, 未嘗如古大有爲之君, 與學士大夫討論先王之法, 以措之天下也. 一切因任自然之理勢, 而精神之運, 有所不加, 名實之間, 有所不察. 君子非不見貴, 然小人亦得廁其間. 正論非不見容, 然邪說亦有時而用. 以詩賦記誦求天下之士, 而無學校養成之法. 以科名資力敘朝廷之位, 而無官司課試之方. 監司無檢察之人, 守將非選擇之吏. 轉徙之亟, 既難於考績, 而遊談之衆, 因得以亂真. 交私養望者多得顯官, 獨立營職者或見排沮. 故上下偷惰取容而已. 雖有能者在職, 亦無以異於庸人. 農民壞於繇役, 而未嘗特見救恤. 又不爲之設官, 以修其水土之利. 兵士雜於疲老, 而未嘗申勅訓練, 又不爲之擇將, 而久其弱豐易之權. 宿衛則

神宗은 이러한 王安石의 개혁의 當爲性에 공감하여 熙寧 2년, 王安石을 國政 전반을 관장하는 右諫議大夫 參知政事로 발탁하였고, 戶部 · 度部 · 鹽鐵을 총괄하는 국가 財政 부문의 최고 기관으로서 사실상 新法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司命塔인 制置三司條例司의 首領으로 임명하여 新法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新法정책에 대해 蘇軾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王安石과 대립각을 세웠다. 蘇軾은 熙寧 4년, 〈上神宗皇帝書〉와 〈再上皇帝書〉 등의 上疏文을 올려 강력하게 新法의 반대론을 전개하였다.

신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가지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人心을 결합하고, 풍속을 두텁게 하며, 기강을 세우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 없으며, 신하들은 폐하의 명을 믿을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폐하의 法을 믿기 때문에 強暴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임금인 자가 믿는 바는 누구이겠습니까? 《書經》에 ‘내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두렵도다! 마치 썩은 새끼줄로 여섯 두의 말을 모는 것 같도다!’라고 하였는데, 천하에 임금보다 위태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로부터 본다면 임금이 믿을 수 있는 바는 인심일 뿐입니다. 인심은 임금에게 있어서 나무의 뿌리와 같고, 등불의 기름과 같으며, 물고기의 물과 같고, 농부의 밭과 같으며, 상인의 재물과 같습니다. —— 임금이 민심을 잃으면 망하는 것이니, 이는 필연적인 이치이고 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 오로지 商鞅의 變法은 사람들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았으니, 비록 갑자기 富強에 이를 수 있었다 할지라도, 또한 천하에 원망을 불러일으켰고 백성들로 하여금 利는 알고 義는 모르게 하고, 刑을 보게 하고 德을 보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천하를 얻기는 하였지만, 얼마없어 잃고 말았습니다. 그 자신의 몸에 이르러서도 또한 결국 면하지 못하고 죄를 짊어지고 도망갔으나 제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레에 묶여 사지를 찢는 형벌로 죽었는데, 秦나라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君臣 사이에 어찌 이와 같은 것을 원하겠습니까? —— 무릇 制置三司條例司는 私利를 구하는 명분입니다. 여섯, 일곱 젊은 사람과 使者 40여 무리가 私利를 구하는 도구입니다. 매와 개를 물고서 숲으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사냥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와 개를 풀어주고 짐승들 스스로 길들여지도록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물을 가지고 강과 바다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낚시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聚卒伍無賴之人，而未有以變五代姑息羈縻之俗。——其於理財，大抵無法，故雖儉約而民不富，雖憂勤而國不强，賴非夷狄昌熾之時，又無堯湯水旱之變，故天下無事，過於百年。

하는 것은 그물을 버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믿도록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사악한 것을 없애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심을 회복하고 나라의 근본을 안정시키려면 곧 制置三司條例司를 없애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선비들 중에 進言한 자는 적지 않으나, 또한 일찍이 국가의 존망하는 까닭과 曆數의 길고 짧은 까닭을 폐하에게 고한 자가 있었습니까? 무릇 국가의 존망하는 까닭은 도덕의 깊고 얕음에 있지, 강약에 있지 않습니다. 曆數의 길고 짧은 까닭은 풍속의 두텁고 얇음에 있지, 富와 貧에 있지 않습니다. 도덕이 진실로 깊고, 풍속이 진실로 두터우면, 비록 가난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길게 존재할 수 있으나, 도덕이 사실상 옅고 풍속이 옅으면 비록 강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짧고 망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임금께서도 이를 아시면 곧 가볍고 중히 여길 바를 아실 것입니다.⁴⁾

蘇軾은 이 글에서 《書經·五子之歌》의 文句를 인용하여 자신의 立論의 근거로 삼고, 임금이 백성을 다스림은 마치 썩은 새끼줄로 여섯 두의 말을 모는 것처럼 위태로운 것이니, 신중하게 인심을 좇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하여 몇몇 私利를 추구하는 관리들이 여론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新法을 추진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人心을 결합하고, 풍속을 두텁게 하며, 기강을 세워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商鞅의 變法을 예시하면서 王安石 變法의 폐단과 몰락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王安石은 〈商鞅〉詩⁵⁾에서 商鞅의 “徒木北門”의 典故를 暗用하여 商鞅을 옹호하면서 蘇軾을 비롯한 新法 반대파들⁶⁾에게 反論을 전

4) 《蘇東坡全集》，河洛圖書出版社，1975，續集 pp.330 - 339，〈上神宗皇帝書〉：臣之所欲言者三：願陛下結人心、厚風俗、存紀綱而已。人莫不有所恃，人臣恃陛下之命，故能役使小民；特陛下之法，故能勝伏強暴。至於人主所恃者誰歟？《書》曰：“予臨兆民，懷乎若朽索之馭六馬。”言天下莫危於人主也。——由此觀之，人主之所恃者，人心而已。人心之於人主也，如木之有根，如燈之有膏，如魚之有水，如農夫之有田，如商賈之有財。——人主失人心則亡，此理之必然，不可違之災也。——唯商鞅變法，不顧人言，雖能驟至富強，亦以召怨天下，使其民知利而不知義，見刑而不見德。雖得天下，旋踵而失也。至於其身，亦卒不免，負罪出走，而諸侯不納；車裂以徇，而秦人莫哀。君臣之間，豈願如此？——夫制置三司條例司，求利之名也；六七少年與使者四十餘輩，求利之器也。驅鷹犬而赴林藪，語人曰：“我非獵也。”不如放鷹犬而獸自馴；操網罟而入江海，語人曰：“我非漁也。”不如捐網罟而人自信。故臣以爲，消讒慝以召和氣，復人心而安國本，則莫若罷制置三司條例司。——士之進言者，爲不少矣，亦嘗有以國家之所以存亡、曆數之所以長短告陛下者乎？夫國家之所以存亡者，在道德之淺深，不在乎強與弱；曆數之所以長短者，在風俗之厚薄，不在乎富與貧。道德誠深，風俗誠厚，雖貧且弱，不害於長而存；道德誠淺，風俗誠薄，雖強且富，不救於短而亡。人主知此，則知所輕重矣。 * 이하 《蘇東坡全集》에 대한 出版社，出版年度는 생략함.

5) 李之亮 補箋 《王荊公詩注補箋》，巴蜀書社，2002，p.903. * 이하 補箋者，出版社，出版年度는 생략함.

개하며 개혁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闡明하였다.⁷⁾

自古驅民在信誠, 자고로 백성 다스리는 건 믿음과 성실에 있는 법
 一言爲重百金輕, 한 마디 말 중하고 백금⁸⁾ 가볍게 여겼거늘
 今人未可非商鞅, 지금 사람들 상앙 비난해선 안되리
 商鞅能令政必行, 상앙, 내린 법령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니

또한 蘇軾이 新法을 비판한 실상은 그의 시문 속에서 적지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문은 결국 '烏臺詩案'의 禍根이 되었다. 監察御使 何大正·舒亶, 國子博士 李宜, 御史中丞 李定 등이 蘇軾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림으로써 蘇軾 문집의 내용을 御史臺에서 심사하고 新法 諷刺, 조정 우롱, 황제 비판 등의 구실로 탄핵되어 구금되었다. 그것은 황제에게 올린 〈湖州謝表〉가 직접적 원인이 되고, 杭州通判 이래 嬉笑怒罵하는 時政 諷刺의 시들이 구실이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蘇軾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司馬光 등의 구명운동, 神宗과 王安石의 배려 등으로 석방되어 黃州團練副使로 貶謫되었다.⁹⁾

'烏臺詩案'의 禍根이 되었던 詩 작품 중에서 〈山村〉¹⁰⁾에 주목하여 보자.

其二

烟雨濛濛鷄犬聲, 이슬비 자욱한 곳에 닭소리 개소리 들리나니
 有生何處不安生, 생명 있는 게 어디선들 편안히 살지 않으리오?
 但令黃犢無人佩, 허리에 송아지를 차는 사람만 없게 하면
 布穀何勞也勸耕, 뱀꾸기마저 어찌 힘들여 밭갈이를 재촉하리오?

6) 王安石은 新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既得權層인 保守派의 비방과 반대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때로는 商鞅과 王安石을 함께 싸잡아 놓고 罵倒하였던 것이다. 특히 蘇軾은 〈論商鞅〉에서 "商鞅、桑弘羊의 術策으로써 나라를 망하게 하고 宗廟를 파멸시키는 자는 모두 이렇다. 그러나 끝끝내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말의 달콤함을 즐기지만 그 禍의 참혹함을 잊고 마는 것이다 (用商鞅、桑弘羊之術破國亡宗者, 皆是也. 然而終不悟者, 樂其言之美便, 而忘其禍之慘烈也.)" 라고 하면서 王安石의 新法 정책에 대해 신랄한 毒舌을 퍼부었다.

7) 拙著, 《王安石 經世文學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pp.240-241 참조.

8) 金은 古代의 화폐 단위로, 秦나라 당시에는 20兩의 銅이 1金이었음.

9) 王水照 著, 曹圭百 譯, 《중국의 문호 소동파》, 월인출판사, 2001, p.96 참조.

10) 《蘇東坡全集》前集 pp.80-81. 이 시와 이하 대부분의 시 번역은 柳鍾陸 譯註, 《蘇軾詩集》(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을 따랐음.

其四

杖藜裹飯去怱怱, 지팡이 짚고 도시락 싸서 총총히 나가 보니
 過眼青錢轉手空. 푸른 돈이 획 지나가 순식간에 없어지네
 贏得兒童語音好. 얻은 것은 아이들의 말소리가 좋아진 것
 一年強半在城中. 일년 중의 태반을 성 안에서 지내는 덕분이네

제2수는 「烏臺詩案」에서 '사업판매업자들을 前漢 사람 龔遂의 일¹¹⁾을 가져다 풍자했으니, 鹽法을 공평하게 하여 칼과 검을 차고 다니는 대신 소를 사고 송아지를 사게 하기만 하면 힘써 농사를 지을 것이므로 권농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로 조정의 鹽法이 너무 가혹하여 불편함을 풍자한 것이다.'라고 斷案하였고, 제4수는 '烏臺詩案'에서 '靑苗法과 助役法의 불편함을 풍자한 것이다.' 라고 斷案하였다.¹²⁾

제2수의 내용은 사실상 王安石의 집권 이전의 견해와 일치하는데, '烏臺詩案'의 증거로 채택된 것이 아이러니하다. 王安石 역시 鄆縣의 知事로 있을 당시에는 蘇軾 처럼 私鹽의 금지와 官家의 수탈에 신음하는 鹽戶의 고통을 直視하고 私鹽禁止法의 개선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州家飛符來比櫛, 州의 긴급 공문 즐비하게 내려오니
 海中收鹽今復密. 바다 소금 채취하는 단속 이제 다시 엄해졌네
 窮囚破屋正嗟歎, 굶주린 죄인들 부서진 집 앞 흐느낌 속에
 吏兵操舟去復出. 관리와 병졸들 배를 저어 나갔다 다시 오네
 海中諸島古不毛, 바다 속 못섬들 옛부터 불모의 땅이긴 하였건만
 島夷爲生今獨勞. 섬사람들 삶, 지금이 가장 힘든 때
 不煎海水餓死耳, 소금 굶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
 誰肯坐守無亡逃. 어느 누가 가만히 앉아서 도망가지 않으리오?
 爾來賊盜往往有, 요즘은 도적들마저 왕왕이 나타나

11) 柳應奎 譯註, 《蘇軾詩集》,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p.800 : 前漢의 龔遂가 渤海太守로 있을 때 백성들 가운데 칼과 검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검을 팔아 소를 사고 칼을 팔아 송아지를 사도록 권유하면서 “어찌 소와 송아지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가?”라고 했다. 이 구절은 당시 新法의 폐해를 견디다 못해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유랑민이 된 사람이 많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12) 上同, pp.798-799 참조.

劫殺賈客沈其艘. 장사꾼들 찢러 죽이고 배까지 침몰시킨다네
 一民之生重天下, 한 백성의 삶이라도 천하보다 중한 것이거늘
 君子忍與爭秋毫. 군자로서 어찌 백성과 더불어 한 가닥 이익 다투겠오¹³⁾

王安石은 私鹽의 금지로 졸지에 굶어 죽을 신세가 되고 만 鹽戶의 호느낌 속에서 억제할 수 없는 비통을 느끼고 있다. 아울러 선량한 鹽戶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 도적으로 轉落하는 불합리한 사회 현상과 백성의 삶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로지 法網만으로 백성들을 움아매는 爲政者들의 그릇된 統治術에 대해 따끔한 一針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백성의 굶주림을 외면한 私鹽禁止法에 대한 그의 改善案은 〈上運使孫司諫書〉¹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삼가 살펴보건대, 각하께서는 아전에게 명령을 내리시어 백성들로 하여금 돈을 내게 하여 사람을 사서 私鹽하는 이들을 붙잡게 하셨는데, 외람되게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닷가의 私鹽은 비록 날마다 사람을 죽이며 금지한다 해도 그 勢는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금을 많이 하여 그들을 피어 서로 붙잡아 고발하라고 한 즉 州縣의 訟事는 반드시 번잡하여 지고 잘못 형벌에 빠지는 자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무죄하고 간사한 사람들은 이러한 勢를 틈타 바닷가의 어업의 일에 있어서 뱃사람들을 소란하게 하여 그 생업을 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생업을 잃은 즉 반드시 합세하여 도적이 되어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면서 서로 원수가 될 것이오니 이것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치는 마땅히 무엇으로 모범을 삼아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옛날의 군자”라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고발을 중시함으로써 풍속을 퇴폐시키게 되며, 問責하여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 弊害가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조이는 法令이 엄해져서 백성들의 民心을 잃게 되고 그러면 국가의 부득이한 禁止令이 더욱 가중될 터인데, 옛날의 군자는 무릇 이렇게 한 자가 없었습니다. 犯法者는 그치지 않고, 고발하는 자도 멈춤이 없고, 소금을 파는 가격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은 즉 고발하는 자를 사는 것도 그 勢가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 천하의 관리는 先王의 道에 의하지 않고, 利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利라고 하는 것은 또한 국가에 이익에 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생각은) 하루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날로 곤궁하여지고 백성들도 날로 빈궁하여져서 원망하고 있습니다.¹⁵⁾

13) 《王荊公詩注補箋》, p.315, 〈收鹽〉.

14) 《王荊公文集箋注》, pp.1353-1355.

이 글은 慶歷 8년(1048), 王安石이 鄞縣의 知事로 있을 때 그의 上官인 轉運使 孫甫에게 올린 것이다. 당시 鄞縣은 바다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소금을 구워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財政의 결핍을 충당하기 위하여 茶, 鹽, 酒를 專賣品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私鹽은 엄중히 금지가 되었지만, 백성들은 생계를 유지하게 위해 부득불 法을 어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 정부의 탄압 속에 소금을 密賣하는 私鹽商人들은 “鹽賊”, “鹽盜”, “鹽徒”, “梟” 등으로 불리우며 도적과 다름없이 취급되고 있었다.¹⁶⁾ 또한 소금에 대한 專賣制度는 繁碎하고 殘酷한 “私鹽律”, “犯鹽條例” 등을 制定하고 있었다. 이에 王安石은 轉運使에게 간곡히 進言을 하였던 것이다. 이 글에서 그는 먼저 사람을 사서 私鹽業者를 체포하도록 한 데 대하여 鄞縣의 자연 조건과 경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私鹽 금지 방법은 民心을 잃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實效를 거둘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蘇軾의 〈吳中田婦歎〉¹⁷⁾을 살펴보자.

今年粳稻熟苦遲.	올 메벼는 익기가 더더
庶見霜風來幾時.	서릿바람이 곧 불어올 것 같았는데
霜風來時雨如瀉.	서릿바람 불어올 제 폭우 쏟아져
把頭出鹵鎌生衣.	고무래에 곰팡이 치고 낮은 녹슬었네
眼枯淚盡雨不盡.	눈이 마르도록 눈물은 다해도 비는 멎지 않아
忍見黃穗臥青泥.	차마 누린 이삭이 시퍼런 진흙에 누워있는 걸 못보겠구나
茅苫一月隴上宿.	띠거적 깔고 한 달이나 밭두렁에서 자다가
天晴穫稻隨車歸.	날 개자 벼 거두고 수레 따라 돌아왔네
汗流肩頰載入市.	땀 흘리며 어깨 피명들며 시장에 지고 갔는데
價賤乞與如糠糶.	헐값이라 구걸하듯 싸라기처럼 팔아버렸네

15) 伏見閣下令吏民出錢, 購人捕鹽, 竊以爲過矣. 海旁之鹽, 雖日殺人而禁之, 勢不止也. 今重誅之, 使相捕告, 則州縣之獄必蕃, 而民之陷刑者將衆, 無賴姦人將乘此勢, 於海旁漁業之物蠢動艚戶, 使不得成其業. 艚戶失業, 則必有合而爲盜, 賊殺以相仇者, 此不可不以爲慮也. —— 且吏治宜何所師法也? 必曰: “古之君子.” 重告誅之利以敗俗, 因國家不得已之禁, 而又重之, 古之君子蓋未有然者也. 犯者不休, 告者不止, 繼鹽之額不復於舊, 則購之勢未見其止也. —— 天下之吏, 不由先王之道而主於利. 其所謂利者, 又非所以爲利也, 非一日之積也. 公家日以窳, 而民日以窮而怨.

16) 文洋奐, 《北宋代 鹽專賣商人의 仲介商業 活動》,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7, pp.14-16 참조.

17) 《蘇軾全集》前集 p.76.

賣牛納稅折屋炊, 소 팔아 세금 내고 집 뜯어 밥 짓지만
 慮淺不及明年饑, 내년 굶주림까지는 생각조차 미치지 못하네
 官今要錢不要米, 관가에선 돈을 요구하고 쌀은 받지 않고
 西北萬里招羌兒, 서북 만리 오랑캐를 불러들이네
 龔黃滿朝人更苦, 龔遂 黃霸라는 관리들 조정에 가득해도 사람들 더욱 고통스러워
 不如却作河伯婦, 오히려 하백의 아내 되느니만 못하리라!

이 시는 新法정책이 점차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시기의 작품이다. 춘추시대 뫼나
 라 영토였던 太湖 유역의 한 농촌 여인의 歎息調로, 水災와 과중한 세금으로 민생
 도탄에 빠진 비참한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民生苦는 바로 新法 중
 의 靑苗法과 免役法으로 초래된 폐해임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前漢의
 유능한 관리였던 龔遂, 黃霸가 조정에 가득하다고 하면서 당시 新法 정책을 추진하
 던 개혁과 관리들을 풍자하며 비꼬고 있다. 新法 정책은 사회 모순을 해결하고, 소
 수인의 폭리를 억제하고 부국강병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 정책이었으나, 무리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폐단을 초래함으로써 기득권층인 보수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다음의 〈戲子由〉¹⁸⁾에서는 新法 반대의 강도가 더욱 거세어진다.

讀書萬卷不讀律, 책을 만 권 읽었어도 법률은 읽지 않아
 致君堯舜知無術, 우리 임금 요순으로 만들 수 없음을 잘도 아네
 勸農冠蓋鬧如雲, 권농의 갓과 수레가 구름처럼 부산해도
 送老蠶鹽甘似蜜, 늙은이에겐 나물과 소금이 꿀같이 달다
 門前萬事不掛眼, 문 앞의 모든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頭雖長低氣不屈, 고개 항상 숙였어도 기개는 높다
 餘杭別駕無功勞, 항주의 통관은 공로도 없이
 畫堂五丈容旂旄, 五丈旗가 들어가는 으리으리한 단청집에 사는데
 重樓跨空雨聲遠, 허공에 걸린 겹겹의 누각에 빗소리도 아련하고
 屋多人少風騷騷, 인적 드문 수많은 건물에 바람소리 스산하다
 平生所慘今不恥, 평생토록 부끄럽게 여겨 온 일이건만 지금은 오히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坐對疲氓更鞭箠, 편안하게 앉은 채로 지친 백성 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8) 上同, p.64.

채찍질도 한다네

道逢陽虎呼與言, 길에서 양호를 만나면 그를 불러 얘기하나니
 心知其非口諾唯, 속으로는 그른 줄 알면서 입으로는 맞장구친다네
 居高志下眞何益, 지위만 높고 뜻이 낮으면 정말 무슨 보탬이 되랴
 氣節消縮今無幾, 의기와 절개가 쪼그라들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 시는 蘇軾이 杭州通判으로 있을 때, 靑苗法을 반대한 이유로 陳州州學教授로 좌천된 字가 子由인 동생 蘇轍에 부쳐 지은 작품이다. ‘책을 만 권 읽었어도 법률은 읽지 않아, 우리 임금 요순으로 만들 수 없음을 잘도 아네.’ 라고 하였는데, 이는 무지하여 新法을 잘 모르니 임금을 보필할 재간이 없다고 自嘲하면서 新法을 풍자하고 있다. 또한 개혁정책을 빌미로 자신들은 호사하면서 백성들을 몰아붙이는 위선적인 관리들을 비판하면서, 자신 역시 ‘평생토록 부끄럽게 여겨 온 일이건만 지금은 오히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편안하게 앉은 채로 지친 백성 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채찍질도 한다.’면서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데 대하여 自責하고 있다.

王安石의 新法정책 중 하나인 과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蘇軾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이 태양을 알지 못하여 눈이 온전한 사람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장님에게 “태양의 모양은 구리 쟁반과 같소.”라고 하자, 장님은 쟁반을 두드려 그 소리를 들었다. 훗날 종소리를 듣고는 태양이라 생각했다. 어떤 사람이 장님에게 “태양의 빛은 촛불과 같소.”라고 하자, 초를 더듬어서 태양의 형체를 파악하였다. 훗날 피리를 만져보고는 태양이라 생각했다. 태양은 종이나 피리와 훨씬 다르지만, 장님이 그 차이를 모른 것은 일찍이 본 적도 없으면서 남으로부터 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道를 이해하기 어려운 바는 태양보다 더 심하므로, 사람이 道에 통달하지 못함은 장님과 다를 바가 없다. 통달한 자가 알려주는데 비록 교묘한 비유로 잘 인도해준다 할지라도 또한 구리 쟁반과 촛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道를 말하는 자가 혹은 본 바를 道라고 설명하고, 혹은 보지도 않고서 道라고 추측하는데, 모두 道를 구함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즉 道는 결국 구할 수 없는 것인가? 나 蘇子は 말한다. “도는 (스스로) 이를 수는 있어도, (역지로) 구할 수는 없다.” —— 예전에는 聲律로써 관리를 선발하였기 때문에, 선비들은 雜

學을 하고 道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 지금은 經術로써 관리를 선발하게 되자, 선비들이 道를 구해야 함을 알면서도 배우기를 힘쓰지 않는다.¹⁹⁾

여기에서 蘇軾은 장님이 태양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예로 들고, 선비들이 스스로 道를 추구하지 않으면 실령 道에 통달한 자가 교묘하게 비유를 들며 잘 인도해준다 할지라도 진정한 道에 이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관직에 나아가려는 선비들이 스스로 진정한 道를 구하지 않고 틀에 박힌 공부에 얽매어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원인은 聲律 즉 詩賦로써 取士 하던 선발 방식을 經術로 바꿨지만 선비들의 道를 추구하는 방식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王安石의 과거제도 개혁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蘇軾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王安石의 과거제도 개혁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고, 蘇軾이 비판하고 있는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王安石은 新法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道德心이 높고 능력이 있는 인적 자원이며, 따라서 科擧·學校制 개혁을 통한 經綸之士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時急함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오호! 道가 밝지 않은 것은 어찌 다만 가르침이 지극하지 않아서인가? 선비 또한 잘못이 있는 것이다. 오호! 道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어찌 단지 敎化가 지극하지 않아서인가? 선비 역시 잘못이 있는 것이다. 무릇 일정한 재산은 없지만, 常心이 있는 자가 옛날의 이른바 선비인 것이다. 선비가 진실로 常心을 가지고 聖人の 가르침을 파악하여 애써 행하면 道는 비록 천하에 밝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자신에게는 밝아진다.²⁰⁾

19) 《蘇軾坡全集》前集 pp.298-299, 〈日喻〉: 生而眇者不識日, 問之有目者, 或告之曰: “日之狀如銅槃” 扣槃而得其聲, 他日聞鐘, 以爲日也, 或告之曰: “日之光如燭” 捫燭而得其形, 他日揣籥, 以爲日也, 日之與鐘籥亦遠矣, 而眇者不知其異, 以其未嘗見而求之也, 道之難見也甚於日, 而人之未達也, 無以異於眇, 達者告之, 雖有巧譬善導, 亦無以過於槃與燭也, 一 故世之言道者, 或卽其所見而名之, 或莫之見而意之, 皆求道之過也, 然則道卒不可求歟? 蘇子曰: 道可致而不可求, 一 昔者以聲律取士, 士雜學而不知於道, 今也以經術取士, 士知求道而不務學.

20) 《王荊公文集箋注》pp.2053-2054, 〈王逢原墓誌銘〉: 嗚呼! 道之不明邪, 豈特敎之不至也, 士亦有罪焉, 嗚呼! 道之不行邪, 豈特 化之不至也, 士亦有罪焉, 蓋無常產而有常心者, 古之所謂士也, 士誠有常心, 以操聖人之說而力行之, 則道雖不明乎天下, 必明乎己.

이 글은 王安石이 友人인 北宋 詩人 王令(字: 逢原)을 위해 쓴 墓誌銘이다. 여기에서 王安石은 王令의 '곤궁하면서도, 常心이 있는' 선비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常心은 不變의 道德心으로서, 그 당시 선비들의 常心이 결핍된 世態를 개탄하면서 道德心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送孫正之序〉를 살펴보자.

時俗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衆人이다. 자신이 그렇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君子이다. 자신이 그렇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聖人の 道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무릇 君子는 곤궁하고 거꾸러지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굽혀 時俗을 좇으려 하지 않으며, 時俗으로써 道를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君子가 임금에게서 뜻을 얻은 즉 時俗을 改變하여 道로 나아가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 만큼 쉬운 것이니 그의 學術이 평소에 닦여진 것이고, 뜻이 평소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時俗이 楊子·墨子를 좇는데 자신이 그러하지 않은 분은 孟子뿐이다. 時俗이 釋迦·老子를 따르는데 자신이 그러하지 않은 분은 韓愈일 뿐이다. 孟子·韓愈 같은 분은 가히 學術을 평소에 닦고 뜻이 평소에 정해져 있어서 時俗으로써 道를 이길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아깝도다! 임금에게서 뜻을 얻지 못하고 진정한 儒家의 效用을 當代에 발휘 수 없었으니! 그러나 그들은 衆人들 가운데서 탁월하였다. 오호! 내가 오늘날의 세상을 보아 하니, 둥근 관이 우뚝하고 큰 도포가 단정하며, 앉아서는 堯임금을 얘기하고 일어나서는 舜임금을 좇는다 할지라도 孟子·韓愈의 뜻으로 자신의 뜻을 삼지 않는 자가 과연 衆人和 다르겠는가?²¹⁾

이 글은 君子가 衆人和 다른 점은 바로 時勢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확고한 主觀과 分別로 聖人の 道를 추구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선비들은 이러한 君子像을 理想으로 삼고, 時俗을 改變하려는 원대한 뜻을 늘 가슴 깊이 간직하고 學術 研磨에 邁進함으로써 君子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經綸을 펼 기회를 얻었을

21) 《王荊公文集箋注》 pp.1633-1634 : 時然而然, 衆人也. 已然而然, 君子也. 已然而然, 非私己也. 聖人之道在焉爾. 夫君子有窮苦顛蹶, 不肯一失詘己以從時者, 不以時勝道也. 故其得志於君, 則變時而之道, 若反手然, 彼其術素修, 而志素定也. 時乎楊墨, 已不然者, 孟軻氏而已. 時乎釋老, 已不然者, 韓愈氏而已. 如孟, 韓者, 可謂術素修, 而志素定也, 不以時勝道也. 惜也, 不得志於君, 使眞儒之效, 不白於當世! 然其於衆人也, 卓矣. 嗚呼! 吾觀今之世, 圓冠峨如, 大裙襜如, 坐而堯言, 起而舜趨, 不以孟, 韓之心爲心者, 果異衆人乎?

때에 순조롭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젊은 王安石 자신이 自我 修練 과정을 통하여 주체적인 自我를 확립하고 장차 經世濟民하겠다는 강력한 意志의 소유자였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王安石은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먼저 교육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는 太學 교육 質의 제고와 규모 확장, 지방(州縣) 교육기관의 설립 육성, 武學·律學·醫學 등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 관리를 양성해야 하며, 인재 양성의 관건은 교육 내용의 혁신에 달려있다고 역설하였다.

고대에 선비를 선발하는 데에는 모두 학교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道德이 하나가 되었고, 밑으로는 習俗이 이루어져 인재는 모두 세상에 有用할 만하였습니다. 先王의 恩澤이 다한 이래 교육하고 양성하는 法도가 근본하는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 지금 고대의 제도를 회복하여 그 폐단을 개혁하려 한 즉 점진적인 방법이 없음을 걱정하게 되는데, 마땅히 먼저 聲病·對偶의 文을 제거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오로지 經義에 마음을 쏟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이) 朝廷에서 학교를 일으켜 세운 연후에 三代에서 교육하고 관리를 선발하는 法도를 강구하여 천하에 시행하면 거의 고대의 제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²²⁾

당시 詩賦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로 인하여 과거지망생들이 '聲病·對偶의 文'을 익히기에만 급급해하는 현실을 直視하고, 經世致用的 학문인 經義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實務 능력에 뛰어난 유능한 관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王安石은 《三經新義》와 《字說》을 修撰하여 당시 해석이 분분한 經典에 대한 注釋書를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教學의 중심 교재로 삼아 經綸之士를 양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蘇軾은 다른 사상은 인정하지 않고 천하 사람들을 하나의 사상으로 묶으려고 한다는 비판을 가하였다.

22) 上同, p.154. 《乞改科條制劄子》: 古之取士皆本於學校, 故道德一於上, 而習俗於下, 其人材皆足以有爲於世, 自先王之澤竭, 教養之法無所本, 一今欲追復古制, 以革弊, 則患於無漸, 宜先除去聲病對偶之文, 使學者得以專意經義, 以俟朝廷興建學校, 然後講求三代所以教育選舉之法, 施於天下, 庶幾可復古矣.

문장이 쇠퇴하는 오늘날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근원은 사실상 王氏에게서 나왔습니다. 王氏의 文이 반드시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弊는 즐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와 같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孔子도 사람들을 자기와 같도록 할 수 없었으니, 顏淵의 仁과 子路의 勇은 서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王氏는 자기가 배운 것으로 천하를 같게 하려고 합니다. 비옥한 땅은 만물을 같이 자라게 하지만, 자라는 작물을 같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황폐하고 척박한 땅에서는 띠풀이나 갈대만이 보일 뿐으로, 이것은 즉 王氏의 같게 함입니다.” 요새 章子厚를 만났는데, 말하더군요. 先帝께서 만년에 문장의 품격이 낮아짐을 심히 걱정하시어 取士法을 좀 바꿔보고자 했으나, 다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점차로 詩賦로 회복하여 春秋學官을 세우려고 한다니 매우 잘된 일입니다. 저는 늙었지만 후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古人之 큰 업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니, 바로 기대되는 사람은 黃庭堅, 秦觀, 晁補之, 陳師道와 귀하 등 몇 사람에게 불과합니다.²³⁾

蘇軾은 이 글에서 문장이 쇠퇴한 원인을 王安石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王安石이 執政 후 사상 통일을 위하여 자기와 다른 文風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思惟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王安石은 新法 추진 과정에서, 많은 사상가들이 집단이기주의로 儒家經典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학술사상이 통일되지 않게 되었고, 議論이 紛紛하여 정책 결정에 混線이 빚어지는 현실을 목도하였다. 이에 王安石은 經術으로써 인재를 양성하여 三代之治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經術의 새로운 해석을 통한 사상적 통일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여겨 《三經新義》와 《字說》를 修撰하였던 것이다.

저는 세상에 문자를 사용한다가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先王은 학교를 세워 그것을 가르쳤고, 관직을 설치하여 그것을 통달하도록 하였으며, 사신을 두어 그것을 가르치게 하여 문자를 어지럽히는 것을 형벌로써 금하였는데 어찌 세속에 영합하였겠습니까? 무릇 도덕이 歸着하는 바를 같게 하고, 名分과 法度를 하나로 통일하여 지켰을 따름입니다. ---- 道에는 升降이 있고, 文物

23) 《蘇東坡全集》前集, p.376. 〈答張文潛書〉: 文字之衰, 未有如今日者也. 其原實出於王氏. 王氏之文, 未必不善也, 而患在好使人同己. 自孔子不能使人同, 顏淵之仁, 子路之勇, 不能以相移, 而王氏欲以其學同天下. 地之美者, 同於生物, 不同於所生. 惟荒瘠斥鹵之地, 彌望皆黃茅白草, 此則王氏之同也. 近見章子厚言, 先帝晚年甚患文字之陋, 欲稍變取士法, 特未暇耳. 議者欲稍復詩賦, 立春秋學官, 甚美. 仆老矣, 使後生猶得見古人之大全者, 正賴黃魯直, 陳少游, 晁無咎, 陳履常與君等數人耳.

이 그것을 따르며 시대가 변하면 일도 다르므로 문자 또한 바뀌는 것입니다
만, 근원이 나오고 근원이 歸着하는 바는 역시 둘이 아닙니다.²⁴⁾

사실 王安石이 《字說》을 저술한 목적은 문자의 語義로부터 개념의 뜻을 확정하려는 데 있었다. 그는 문자에 대한 해석을 통일함으로써 經典 傳注에 대한 혼란을 수습하려 하였으며, 특히 字解 중에 老莊의 道家와 申不害 · 韓非子 · 商鞅 등의 法家 사상을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개혁 사상을 뒷받침하려 하였던 것이다.²⁵⁾

王安石은 詩賦 위주의 取士制度를 개선하여 經義와 論策에 의한 선발 방식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소위 文吏는 단지 文辭를 숭상할 따름인데, 반드시 또한 古스러라는 역사와 현상에 정통하여야 하고, 禮制와 法度 · 天文 人事와 정치 敎化의 변혁을 익혀야만 하며, 그런 연후에 職務에 시행하게 되면 주도면밀하고 타당하게 政事를 처리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고급의 事例로써 참조하게 되는 것이다. 소위 諸生은 단지 해석하고 암송하며 句讀를 취할 따름인데, 반드시 또한 典禮를 익혀야 하고, 제도와 황제에 대한 예의 · 時政의 계승을 이해해야 하며, 그런 연후에 그것을 직무에 시행하게 되면 시책에 근거를 갖게 됨으로써 중대한 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經術로써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을 고대에 비추어보면 오늘날의 進士는 고대의 文吏이며, 오늘날의 經學은 고대의 儒生인 것이다. 그러나 進士를 策問하는 데에는 단지 章句 · 聲病만으로 오로지 文辭를 숭상하는데, 이것은 대체로 다 재능이 적은 자가 하는 것이다. 經學을 策問하는 데에는 단지 암송을 능사로 여겨 大義를 구하지 않는데, 이것은 대체로 다 識見이 낮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策問함으로써) 학식이 높고 사리에 통달한 사람 중에 어떤 이는 시대에 무용지물로 간주되고, 재능이 뛰어난 선비 중에 어떤 이는 세속에 배척을 당한다.²⁶⁾

24) 《王荊公文集箋注》 pp.747-748, 〈進字說表〉: 竊以書用於世久矣. 先王立學以敎之, 設官以達之, 置使以喻之, 禁誅亂名, 豈苟然哉? 凡以同道德之歸, 一名法之守而已. —— 道有升降, 文物隨之, 時變事異, 書名或改; 原出要歸, 亦無二焉.

25) 王鳳峯, 《王安石人才思想論稿》, 遼寧大學出版社, 1990, p.74 참조.

26) 《王荊公文集箋注》 pp.1109-1110, 〈取士〉: 所謂文吏者, 不徒苟尚文辭而已, 必也通古今, 習禮法, 天文人事, 政教更張, 然後施之職事, 則以詳平正體, 有大議論, 使以古今參之是也. 所謂諸生者, 不獨取訓習句讀而已, 必也習典禮, 明制度, 臣主威儀, 時政沿革, 然後施之職事, 則以緣飾台道, 有大議論, 則以經術斷之是也. 以今準古, 今之進士, 古之文吏也; 今之經學, 古之儒生也. 然其策進士, 則但以章句聲病, 苟尚文辭, 類皆小能者爲之; 策經學者, 徒以詰問爲能, 不責大義, 類皆蒙鄙者能之. 使通才之人, 或見賡於時; 高世之士, 或見排於俗.

이 글은 “取材”에 초점을 두고 古書を 對比하면서 章句와 弊病에 의한 進士科의 선발 방식과 墨義와 帖經에 의한 明經科의 선발 방식 등의 불합리한 과거제도를 비판하고, 經義와 論策에 의한 선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과거제도를 개혁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사실 그 당시에는 詩賦의 재능과 古典의 암기 능력 등의 성적에 의거하여 관리를 발탁하였기 때문에 실제 관직에 부임하게 되면 실무에 익숙한 胥吏들이 다루는 초보적인 업무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²⁷⁾ 이러한 상황 하에서 王安石의 과거제도 개혁 주장은 시대적 요청이며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상적 통일을 위해 《三經新義》와 《字說》를 修撰한 것은 蘇軾의 비판처럼 사상의 자유를 도외시한 발상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詩賦로서 선발하는 제도를 經義와 論策으로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詩賦로서 선발하는 제도가 적합하다고 입장을 바꾼 蘇軾의 일관성없는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폐하께서 옛 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하셔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論策으로 많은 선비들을 시험 치게 하고, 詩賦의 무익한 말 듣는 것을 꺼려하시어 장차 在野의 소박하고 곧은 論을 구하시면, 聖德이 넓어지고 나라 안팎으로 좋아할 것입니다.²⁸⁾

이와 같이 과거제도를 개혁하여 論策으로 시험치게 할 것을 주장한 蘇軾이 위에서 살펴본 〈答張文潛書〉와 같이 經義와 論策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取士法을 다시 詩賦로 부활하자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위에서 예시한 시문 외에도 蘇軾은 〈送錢藻出守婺州得英字〉· 〈送曾子固倅越得燕字〉· 〈和劉道原寄張師民〉· 〈和述古冬日牧丹四首〉· 〈穎州初別子由二首〉· 〈廣陵會三同舍,各以其字爲韻,仍邀同賦〉· 〈八月十五日看潮五絕〉· 〈李杞寺丞見和前篇,復用元韻答之〉· 〈湯村開運鹽河中督役〉· 〈策別安萬民〉· 〈三法求

27) 東一夫, 《王安石事典》, 國書刊行會, 昭和 55, p.28 참조.

28) 《蘇東坡全集》前集, p. 576. 〈疑進士對御試策一〉: 竊見陛下始革舊制, 以策試多士, 屬職詩賦無益之語, 將求山林樸直之論, 聖德廣大, 中外歡喜.

民情賦》·〈六目龜〉 등에서 新法의 추종자들을 비난하거나 新法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다.

앞에서 蘇軾이 王安石의 新法에 대한 반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렇다고 蘇軾이 新法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다.

제가 뵈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新法의 초창기에 오로지 편견을 고수하여 異義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이러한 마음은 충직한 憂國之情으로 귀착되지만, 말한 바는 오류가 있어 이치에 맞는 것이 적었습니다. 지금 聖德이 날로 새로워지고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이 크게 성공하여 지난 번 고집했던 것을 되돌아보면, 더욱 더 迂闊함을 느낍니다.²⁹⁾

이 글은 蘇軾이 徐州知事로 있을 때(1077 - 1079) 藤達道³⁰⁾에게 보낸 서신으로, 新法 정책이 일부 성공을 거두자, 新法 실시 초창기에 편견을 가지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自認하고 있다. 憂國表情의 심정으로 新法에 반발하였지만, 주장하는 바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與章子厚書〉에서도 新法을 반대한 것에 대해 잘못을 是認하고 있다.

저는 옛날 거칠었는데도 또한 聖主에게 知遇를 받았습니다. 도리에 맞고 安分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오늘이 있겠습니까? (新法을) 공격한 바를 돌이켜 생각해보니, 참으로 바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미친 병에 걸린 사람이 강과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³¹⁾

黃州 流配時에 新法派 章子厚³²⁾에게 新法을 공격한 것에 대하여 '미친 병에 걸린 사람이 강과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면서 깊은 사과를

29) 上同, 續集 p.109, 〈與藤達道二十三首 其十九〉: 某欲面見一言者, 蓋爲吾儕新法之初, 輒守偏見, 至有異同之論, 雖此心耿耿, 歸於憂國, 而所言差謬, 少有中理者. 今聖德日新, 衆化大成, 回視向之所執, 益覺疏矣.

30) 東陽人으로, 大理評事, 御史中丞, 翰林學士를 역임하였는데, 新法에 반대하였음.

31) 《蘇東坡全集》續集 pp.355-356: 某昔年粗亦受知於聖主, 使少循理安分, 豈有今日. 追思所犯, 眞無義理. 與病狂之人, 蹈河入海者無異.

32) 이름이 惇이고, 字가 子厚임, 新法派로 王安石이 집권할 때 秘書丞, 檢正中書戶房公事, 右正言, 知制誥, 三司使 등을 역임함.

하고 있다.

哲宗代에 司馬光이 집권하여 新法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할 때도, 蘇軾은 新法 중 타당한 정책은 현행대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특히 免役法을 폐지하여 差役法을 회복하려는 司馬光의 견해에 강력히 반대하였던 것이다.

3. 王安石과 蘇軾의 문학 교류

王安石과 蘇軾은 北宋代를 대표하는 정치가이면서 작가였다. 두 인물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가로서는 개혁과 보수라는 상반된 노선을 추구함으로써 말미암아 서로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王安石이 내세운 新法의 강력한 개혁정책에 대하여 蘇軾이 반대 입장에서 비판을 가함으로써 양인의 불협화음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王安石이 政界를 은퇴한 晩年에는 文友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왕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양인의 詩文 작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蘇軾은 元豐 7년(48세), 黃州에 貶謫되어 있다가 汝州 團練副使를 제수받고 가던 중 金陵을 지나가다가 王安石(64세)을 만나서, 路線이 다른 정치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같이 鍾山을 거닐면서 古昔文字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고, 誦詩說佛하기도 하였다.³³⁾

먼저 王安石의 絕句 四首 중 〈池上看金沙花數枝過酴醾架盛開〉³⁴⁾를 살펴보자.

故作酴醾架, 특별히 도미화에게 받침대를 해주고
 金沙祇漫裁. 금사화는 단지 되는대로 심었네
 似矜顏色好, 예쁜 색깔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飛度雪前開. 눈같은 도미화 앞에 날아와 피었네

33) 蔡條, 《西清詩話》: 元豐間, 王文公在金陵, 東坡自黃北遷, 日與公游, 盡論古昔文字, 間即俱味禪悅, 公嘆息語人曰, “不知更幾百年, 方有如此人物.”

34) 《王荊公詩注補箋》 p.740.

못가에 심은 붉은 빛깔의 도미화와 눈같이 하얀 금사화가 조화롭게 어울린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政界를 은퇴하여 野人으로 金陵에 은거하면서 자연을 즐기며 관조하는 老年 王安石의 여유있는 자태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당시 양인은 도미화와 금사화의 조화로운 어울림처럼 해후하여 화해하였던 것이다. 王安石은 또한 동일한 詩題로 두 편의 시를 더 지었다.³⁵⁾

이어서 〈北山〉³⁶⁾에 주목하여 보자.

北山輸綠漲橫陂, 북산이 푸른 강물 신고서 독을 가득 채우니
直壑回塘灑灑時. 곧은 도랑 구비진 못에 철철 넘칠 때
細數落花因坐久, 낙화 일일이 세느라 오래 앉아
緩尋芳草得歸遲. 방초 천천히 찾느라 늦게서야 돌아오네

자신이 隱居하고 있는 北山 곧 鍾山의 생기있는 情景과 자신의 閑寂한 심정을 생동감있게 묘사하고 있다. 즉 속세를 초연한 幽閑한 심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당시 王安石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鍾山에 묻혀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城府와 鍾山 사이에 半山園이란 허름한 집에 기거하면서, 때로는 나귀에 몸을 맡기고 자연과 高僧을 벗삼아 悠悠自適을 즐겼는가 하면³⁷⁾ 때로는 주로 定林寺의 昭文齋에서 학문 탐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蘇軾은 위에 예시한 王安石의 絕句 四首에서 次韻하여 〈次荊公韻四絕〉³⁸⁾을 지어 화답하였는데, 그 중 세 번째 시를 살펴보자.

35) 上同, p.803. 〈池上看金沙花數枝過籬架盛開二首〉: 午陰寬占一方苔, 暎水前年坐看裁. 紅蕊似嫌塵染污, 青條飛上別枝開. / 醉籬一架最先來, 夾水金沙次第裁. 濃綠扶疏雲對起, 醉紅撩亂雪爭開.

36) 上同, p.803.

37) 《續健康志》(李之亮 補箋, 《王荊公詩注補箋》 p.64, 〈題半山寺壁二首〉에서 재인용): 半山寺, 卽公古宅也. — 築第於白下門外, 去城七里, 去蔣山亦七里. 平日乘一驢, 從數僮, 游諸寺. 欲入城, 則乘小舫之潮溝以行, 蓋未嘗乘馬與肩輿. 所居之地, 四無人家. 其宅僅蔽風雨, 又不設垣牆, 望之, 若逆旅之舍. 有勸築垣, 輒不答.

38) 《蘇東坡全集》 p.197. 예시하지 않은 三首는 다음과 같다. 靑李扶疎禽自來, 清真逸少手親裁. 深紅淺紫從爭發, 雪白鵝黃也鬪開. / 斫竹穿花破綠苔, 小詩端爲覓檀裁. 細看造物初無物, 春到江南花自開. / 甲第非真有, 閑花亦偶裁. 聊爲清淨供, 却學道人開. 이들 三首는 모두 王安石의 시에서 裁, 開에 次韻하고 있음.

騎驢渺渺入荒陂, 노새 타고 아득히 황량한 독에 들어서니
想見先生未病時. 선생의 병들지 않던 때 생각나네
勸我試求三畝宅, 나에게 삼묘 정도 집 구해보라고 권했었는데
從公已覺十年遲. 공을 좇기 십년이나 늦은 걸 느끼네

이 시는 王安石의 〈北山〉시의 陂, 遲에 次韻하고 있다. 一聯에서는 病中에 있는 선생 즉 王安石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뒤의 一聯에서는 이전에 三畝 정도의 조그마한 집을 구해서 이웃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던 王安石의 권유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데 대해 후회하고 있다. 政爭으로 敵對視하던 양인의 마음을 비우고 서로를 포용하는 모습 속에서 큰 인물됨을 느낄 수 있다.

金陵에서 해후하여 유람하며 文友로서 唱和하는 양인의 모습은 〈和子瞻同王勝之遊蔣山并序〉³⁹⁾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金陵限南北, 금릉으로 남북의 경계로 삼았으니
形勢豈其然.. 형세가 어찌 이렇게 되었나!⁴⁰⁾
楚役六千裏, 초나라 육천리에 사역 당하고⁴¹⁾
陳亡三百年. 진나라에 이르기까지 삼백년만에 망하고 말았네⁴²⁾
江山空幕府, 강산엔 막부 텅비었고⁴³⁾
風月自旣船. 풍월에 스스로 건너는 술 실은 배
主送悲涼岸, 晉王이 애첩을 전송하던 처량한 강기슭
妃埋想故蓮. 潘妃는 묻혔지만 옛날 연꽃 위를 걷던 아름다운 모습 떠오르네⁴⁴⁾
廳傾鳳久去, 봉황대는 기울어 봉황이 떠난 지 오래되었고
城踞虎爭偏. 石頭城은 웅크린 범처럼 한 쪽에서 싸우는 듯

39) 《王荊公詩注補箋》p.461.

40) 魏文帝 曹丕가 長江을 바라보며, 당시 남북으로 나뉜 상황에서 무장한 기마부대 친군이 있어도 소용없음을 한탄한 고사를 인용.

41) 楚나라가 長江 中下流에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秦나라에게 망하여 심지어 襄王은 使役까지 당한 고사를 인용.

42) 金陵에 도읍한 六朝가 東晉으로부터 陳에 이르기까지 무려 300년 동안이었지만, 隋나라에게 멸망당한 고사를 인용.

43) 東晉의 丞相 王導가 이곳에 세운 幕府를 가리킴.

44) 연꽃을 등에 새기고 潘妃로 하여금 그 위를 걷게 하였는데, “걸음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네.”라고 스스로 말했다는 고사(《南史·齊東昏侯紀》)를 인용.

司馬壩廟域, 司馬門과 묘역은 사이에 공터를 두고
 獨籠層塔顛. 독룡층탑에 우뚝 솟아있네
 森疏五願木, 숲은 성겨 오원목만 있고
 蹇淺一人泉. 굽이굽이 얇은 일인천이 있네
 枳杖窮諸嶺, 지팡이를 짚고 못산을 오르는데
 籃輿罷半天. 대나무 다리가 半山에 머물게 하네
 朱門圍綠水, 붉은 대문 뜰은 푸른 물을 두르고
 碧瓦第青煙. 푸른 기와집엔 푸른 연기 피어오르네
 墨客眞能賦, 묵객은 참으로 시에 뛰어나
 留詩野竹娟. 남긴 시는 야생 대나무처럼 준수하도다.

蘇軾이 王勝之⁴⁵⁾와 蔣山(즉 鍾山)을 유람하면서 지은 〈同王勝之遊蔣山〉⁴⁶⁾ 시에 王安石이 화답하여 지은 작품이다. 王安石이 직접 序文에서 “子瞻이 王勝之와 함께 蔣山을 유람하면서 쓴 시가 있다. 내가 ‘봉우리가 많아 해를 교묘하게 가리고, 강은 먼데 하늘을 떠돌고 싶구나!(峰多巧障日, 江遠欲浮天)’라는 시구를 좋아해서 그韻을 따다.”라고 作詩 동기를 밝히고 있다. 먼저 六朝 이래 도읍지였던 金陵의 역사를 회고하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읊고, 典故를 인용하여 애환의 발자취를 그리고 있다. 중반부에서는 蔣山의 빼어난 景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묵객 蘇軾의 文才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王安石이 蘇軾을 文友로서 높히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王安石이 蘇軾의 빼어난 文才를 칭찬하며 그의 시를 次韻한 작품 중에 또 〈讀蔣山集次韻雪詩五首〉⁴⁷⁾와 〈讀蔣山集愛其雪蒲用韻復次韻一首〉⁴⁸⁾가 있는데 그 중 一首를 살펴보자.

若木昏昏未有鴉, 약목⁴⁹⁾에 어둠이 덮히자 가지 끝에 갈가마귀 깃들고

45) 河南人으로 이름이 益柔이며, 字가 勝之임. 恩蔭으로 관직에 나와서, 范仲淹의 추천으로 集賢校理가 되었음.

46) 《蘇東坡全集》前集, p.198 : 到郡席不暖, 居民空惘然. 好山無十里, 遺恨恐他年. 欲款南朝寺, 同登北郭隄. 朱門收畫戟, 紺宇出青蓮. 夾路蒼髯古, 迎人翠麓偏. 龍腰蟠故國, 烏爪寄曾巔. 竹杪飛華屋, 松根泣細泉. 峰多巧障日, 江遠欲浮天. 略約橫秋水, 浮屠插暮煙. 歸來踏人影, 雲細月娟娟.

47) 《王荊公詩注補箋》, p.499.

48) 上同, p.503.

49) 若木은 신화 중의 해가 지는 곳에 산다는 나무.

凍雷深閉阿香車. 隆隆 언 우레는 아향이 모는 수레를 깊게 닫았네⁵⁰⁾
 搏雲忽散徙爲屑, 모인 구름 홀연히 흩뜨려 체로 걸러 가루를 만든 듯
 剪水如分綴作花. 물을 잘라 나누는 듯하다가 모여서 꽃이 되네
 擁箒尚憐南北巷, 비를 들고 걱정하는 남북 거리의 사람들
 持杯能喜兩三家. 술잔을 들고 기꺼이 기뻐하는 몇몇 집들
 戲撥亂拋輸兒女, 눈덩이를 치는 놀이에서 아녀자에게 지고
 羔袖龍鍾手獨叉. 가죽옷 입고 노쇠하니 손만 오직 팔짱끼고 있네

이 시는 蘇軾이 熙寧七年 겨울, 密州知事로 부임하는 도중 常州를 경유할 때 지은 〈雪後書北臺壁二首 其二〉⁵¹⁾의 韻⁵²⁾를 次韻하여 지은 작품이다. 神話 중의 ‘若木’과 ‘阿香’등을 인용하여 한겨울의 풍경을 묘사한 점이 교묘하다. 또한 除雪을 걱정하는 빈곤층과 雪景을 여유롭게 즐기는 부유층을 대비시킴으로써 곤궁한 백성들에게 憐憫의 情을 보내고 있다. 童心으로 돌아가 아녀자와 같이 어울리는 모습이 익살스럽다.

金陵에서의 양인은 “兩公 名賢이 명승지에서 상봉하여 시문을 읊었는데, 文彩 風流가 千古에 이름답게 빛날 것인 즉 강산 또한 그들을 위해 장관을 이루었네.”⁵²⁾라고 할 만큼 이전 정치인으로서의 대립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文友로서 정감을 나누었던 것이다.

蘇軾은 金陵에서 王安石과 이별한 후, 儀眞(지금의 江蘇省 儀征縣)에 이르러 王安石에게 서신을 보내 欽慕의 情을 나타냈다.

제가 머리를 조아려 大觀文(즉 觀文展大學士)으로 특진한 相公 執事(즉 王安石)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지나는 길에 누차 뵈 수가 있었는데, 위로와 가르침을 받아 은혜가 매우 두둑습니다. 이별 이후에 승상의 만복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저는 애당초 금릉에다 발을 사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종산 아래에서 노년을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지 못해, 지금은 儀眞에 와서 또 이십여일 동안 발을 구하는 것으로 일을 삼고 있습니다만, 이루

50) 阿香은 신화 중의 우레 수레를 모는 女神.

51) 《蘇東坡全集》前集, p.106 : 城頭初日好翻鴉, 陌上晴泥已沒車. 凍合玉樓寒起粟, 光搖銀海水生花. 遺蝗入地應千尺, 宿麥連雲有幾家. 老病自嗟詩力退, 空吟冰柱憶劉叉.

52) 蔡上翔, 《王荊公年譜考略》, 洪氏出版社, 1975, p.318 : 兩公名賢, 相繼游也, 歌詠篇章, 文彩風流, 照耀千古, 則江山亦爲之壯色.

어질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약 다행히 이루어진다면, 일엽편주로 왕래하면서 공을 뵈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에 高郵 사람 進士 秦觀 太虛⁵³⁾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는데, 公 또한 그 사람을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의 詩文 數十首를 얻어 삼가 올립니다. 詞格의 高下로 보면 물론 주위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지만, 오로지 행동이 도리에 맞고 수양하고 스스로 삼가며, 재주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忠義에 뜻이 있는 사람이므로, 저는 그를 임용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외에도 史書를 博覽하고 佛書에 통달했으며, 醫藥專門書를 강의하고 수집하며, 법률을 익혀 밝으며, 이와 같은 인재는 하나 하나 손으로 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탄식은 古수이 똑같습니다. 秦觀같은 사람은 실로 얻기 어렵습니다. 원컨대 公이 조금이라도 알려주셔서 세상에 지명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가을 공기가 나날이 좋아지니, 公의 작은 병은 이미 없어졌겠지요. 절기에 순응하셔서 나라를 위해 몸조심하시기를 옆드려 뵈니다.⁵⁴⁾

먼저 蘇軾은 金陵에서 王安石을 접견하고 위로와 가르침을 받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어서 앞에서 살펴본 〈次荊公韻四絕 其三〉 시에서 ‘조그만한 땅을 마련하여 노년을 이웃에서 같이 보내자’는 王安石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金陵과 가까운 儀眞에 살면서 王安石과 자주 뵈고 싶다는 뜻을 말하고 있다. 또한 蘇門四學士 중의 하나인 秦觀의 詩文을 보내면서, 秦觀이 다방면에 걸쳐 출중한 인재임을 소개하며 임용을 부탁하고 있다. 이러한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만년의 王安石과 蘇軾은 절친한 知友 관계였음이 확연하다.

이러한 蘇軾의 서신에 대해 王安石은 바로 회신을 하였다.

제가 아뢰웁니다. 장문의 서신에서 가르침과 깨우침을 받았고, 아직 江北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한 달이 지나갔으니, 어찌 마음

53) 秦觀이 아직 進士에 급계를 하지 않았으나, 敬稱으로 進士라 부르고 있음. 太虛는 秦觀의 字임.

54) 《蘇東坡全集》續集 p.351. 〈上荊公書〉：某頓首再拜特進大觀文相公執事。近者經由，屢獲請見，今來儀眞，又已二十餘日，日以求田爲事，然成否未可知也。若幸而成，扁舟往來，見公不難矣。向屢言高郵進士秦觀太虛，公亦粗知其人，今得其詩文數十首，拜呈。詞格高下，固已無逃於左右。獨其行義修飾，才敏過人。有志於忠義者，其請以身任之。此外，博綜史傳，通曉佛書，講集醫藥，明練法律。若此類，未易以一一數也。才難之歎，古今共之，如觀等輩，實不易得。願公少借齒牙，使增重於世，其他無所望也。秋氣日佳，微疾想已失去。伏冀順時候，爲國自重。

아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秦君(秦觀)의 詩를 얻고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葉致遠⁵⁵⁾이 방금 보고서 또한 清新하고 아름다우며, 鮑照·謝朓의 詩風과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公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몇권은 현기증이 나서 아직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술 속의 고기 한 토막을 먹어보면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⁵⁶⁾ 公이 秦君을 奇才라 여기고 여러 차례 칭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저 또한 詩를 얻어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秦君이 일찍이 至言妙道를 배웠다고 들었는데, 아마 저와 公이 그를 칭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날 수는 없습디만, 긴 旅路에 몸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서신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군요.⁵⁷⁾

서신의 서두에서 蘇軾과 이별한 후 자주 만나지 못하는 王安石의 안타까운 심정을 통하여 양인의 두터운 관계를 느낄 수 있다. 이어서 蘇軾이 〈上荊公書〉에서 秦觀의 詩文을 王安石에게 보내면서, 걸출한 인재인 秦觀의 임용을 부탁한 데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秦觀의 시가 清新하고 아름다우며, 鮑照·謝朓의 詩風과 비견할 만하다고 높게 평가를 하면서 蘇軾의 추천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다.⁵⁸⁾ 또한 秦觀의 시가 清新하고 아름다워서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現實主義 詩觀을 지닌 王安石이 晩년에는 수사기교와 형식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元豐 8년(1085) 神宗이 病死하자, 哲宗이 10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면서부터 宣仁太后가 攝政하여 당시 舊法黨이 領首였던 司馬光을 門下侍郎으로 기용하였다. 司馬光은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新法黨인 王安石 추종자들을 탄핵 축출하는 한편 新法의 개혁 정책들을 하나, 둘씩 폐지해버리기 시작하였다. 王安石은 이러한 일련의 新法이 무너져내리는 소식을 접하고는 탄식과 비통 속에 哲宗 元祐 元年(1086)

55) 致遠은 字이며, 이름은 濤인. 神宗 熙寧六年 進士에 급제했으며, 國子監直講, 太學博士 등을 역임.

56) 《呂氏春秋·察今》편의 “嘗一臠肉, 而知一鑊之味, 一鼎之調.”에서 인용한 문구로서, 시 몇 수를 보면 그의 詩作이 탁월함을 알 수 있다는 뜻임.

57) 《王荊公文集箋注》p.1256. 〈回蘇子瞻簡〉: 某啓: 承誨隸累幅, 知尚盤桓江北. 俯仰逾月, 豈勝感悵! 得秦君詩, 手不能捨. 葉致遠適見, 亦以爲清新嫵麗, 與鮑、謝似之. 不知公意如何? 餘卷正冒眩, 尙妨細讀. 嘗鼎一臠, 旨可知也. 公奇秦君, 數口之不置: 吾又獲詩, 手之不捨. 然聞秦君嘗學至言妙道, 無乃笑我與公嗜好過乎? 未相見, 跋涉自愛. 書不宜悉.

58) 王安石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공교롭게도 그 이듬 해에 秦觀은 進士에 급제하였음.

4월,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에 국가에서는 王安石을 太傅로 追贈하고 荊國公에 封하였는데, 中書舍人인 蘇軾이 〈王安石贈太傅制〉를 起草하였다.

勅令 : 짐이 太古初를 살펴보건대 天命을 확연히 알겠노라. 비상한 大事를 일어나게 하려면 반드시 稀世의 奇人을 낳도록 하는 법이니라. 그의 명성을 일시에 높게하고, 학문은 천년을 관통하도록 하였다. 지혜는 道를 통달하기에 족했고, 변론은 그의 말을 행하기에 충분했다. 탁월한 글은 만물을 묘사하여 수식하는 데 충분했다. 걸출한 행동은 사방을 울릴 만하였다. 능히 일년 사이에 천하의 時俗을 초목이 바람에 쏠리듯 변화도록 했다. 高官 王安石은 젊었을 때 孔孟을 배웠고, 晩年에는 석가와 노자를 스승으로 삼았다. 六經의 遺文을 網羅하여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百家의 진부한 흔적을 쓸모없는 것이라 여기고 사람들을 새롭게 교화하고자 하였다. 熙寧 연간의 능력있는 인물에 속하며, 걸출한 群臣들의 領袖였다. (황제의) 신임이 두터운 바는 고금에 없는 바이다. 바야흐로 공적이 이루어짐을 보아야 할 때, 갑자기 산림에 은거하려는 흥취가 일어났다. ‘(인생은) 뜰구름 같은데, 무엇을 소유하겠는가?’ 라고 여기고 靦然을 벗어던져버리듯이 (벼슬자리를) 그만두었다. 여러 차례 어부, 나뭇꾼과 자리를 다투고 조용히 사슴과 무리를 이루었다. (벼슬자리의) 進退의 美德은 품위가 있어 본받을 만하다. 짐이 황제에 오른 초기에, 先帝(神宗皇帝) 逝去에 한없는 슬픔에 잠겨있었소. 이에 세분의 황제를 섬긴 원로⁵⁹⁾를 그리워했는데, 아득히 長江의 남쪽에 있더군요. (그의) 방책을 窮究하고나서 그의 풍채를 보고 싶었소. 어찌 그의 별세 소식을 들을 줄 알았겠습니까! 짐이 先帝의 喪中에 있는 시기에. 어찌 백년을 살지 못했나!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오. 아아! 죽음과 삶, 쓰임과 버림의 경계에서 누가 하늘을 거역할 수 있으리오! 재물을 증명하고 명예로운 글로 애도하는 것이 어찌 짐에게 있지 않을소나! 은총으로 황제의 스승인 신하(즉 太傅)의 지위를 주어 儒者로서의 영광이 성대하게 빛나도록 하노라. (그에게) 알려져서 짐의 영광스런 직명을 받길 바라노라.⁶⁰⁾

59) 王安石이 仁宗, 英宗, 神宗 三朝에 걸쳐 벼슬을 하였으므로, 이렇게 일컬음.

60) 《蘇東坡全集》續集 p.351. 勅 : 朕式觀古初, 灼見天命. 將有非常之大事, 必生希世異人. 使其名高一時, 學貫千載. 智足以達其道, 辯足以行其言. 瑰璋之文, 足以藻飾萬物; 卓絕之行, 足以風動四方. 用能於期歲之間, 靡然變天下之俗. 具官王安石, 少學孔孟, 晩師瞿聃. 罔羅六藝之遺文, 斷以己意; 糠粃百家之陳跡, 作新斯人. 屬熙寧之有爲, 冠群賢而首用. 信任之篤, 古今所無. 方需功業之成, 遽起山林之興. 浮雲何有, 脫屣如遺. 屢爭席於漁樵, 不亂群於麋鹿. 進退之美, 雍容可觀. 朕方臨御之初, 哀疚罔極. 乃眷三朝之老, 邈在大江之南. 究觀規模, 想見風采. 豈謂告終之間, 在予諒闇之中. 胡不百年, 爲之一涕. 於戲! 死生用捨之際, 孰能違天? 贈賻哀榮之文, 豈不在我! 寵以師臣之位, 蔚爲儒者之光. 庶幾有知, 服我休命.

이 글은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王安石의 업적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王安石은 하늘이 낳은 稀世의 奇人으로서 비상한 大事인 新法을 시행하였으며, 그의 명성·학문·지혜·변론·글·행동이 탁월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일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전국에 걸쳐 급속도로 時俗을 一新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新法에 대한 칭송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젊은 시절에 孔子·孟子, 만년에는 석가와 공자를 스승으로 삼은 그의 학문에 대해 好評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젊은 시절과 晩年の 추구하는 학문이 다른 것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宋學 자체가 孔孟의 道를 근간으로 하여 佛·老 사상의 장점을 兼容하였던 것이다. ‘六經의 遺文을 網羅하여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百家의 진부한 흔적을 쓸모없는 것이라 여기고 사람들을 새롭게 교화하고자 하였다.’라고 서술한 것은 바로 自得과 創造精神을 말하는 것이다.⁶¹⁾ 또한 황제의 신임을 받고 新法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지만, 保守派의 강한 반발과 개혁과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 자진해서 두 차례 罷相을 요청하여 벼슬자리에 미련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隱逸한 것에 대하여 進退의 美德이라고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先帝喪으로 인하여 王安石을 접견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출하면서 그의 별세에 대해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다. 끝으로 재물을 증정하고 太傅의 勅命을 내리니 九泉에서 영광스럽게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데, 내용이 자못 비통하다. 글 전체에서 蘇軾이 王安石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읽을 수 있다. ‘王安石과 蘇軾의 정치적 대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蘇軾은 王安石의 新法에 대해 전면적인 부정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哲宗代에 司馬光이 집권하여 新法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할 때도, 蘇軾은 新法 정책의 장점을 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특히 差役法의 회복을 반대하며 免役法의 시행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王安石과 蘇軾 양인은 王安石이 新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는 대립 갈등을 겪었지만, 王安石이 政界를 은퇴한 晩년에는 절친한 文友로서 교제하였다. 그들은 상대방의 시를 次韻하여 唱和하며 서로 상대

61) 陳植鏞, 《北宋文化史述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p.303.

방의 文才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서신을 주고 받으며 인간적인 정감을 나누었으며,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자주 왕래할 수 있기를 고대하였던 것이다.

4. 結論

지금까지 王安石과 蘇軾의 정치 대립과 문학 교류의 양상을, 그들의 表狀禮制·書信·詩文 특히 詩文 작품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王安石과 蘇軾은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표적 인물로서, 정치 사상과 政見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王安石이 制置三司條例司의 首領으로 임명되어 新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蘇軾은 新法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王安石과 대립각을 세웠다. 蘇軾은 〈上神宗皇帝書〉와 〈再上皇帝書〉 등의 上疏文을 올려 新法을 강력하게 공격하였다. 民心을 위면한 채, 졸속으로 新法을 추진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民心을 결합하고 풍속을 두텁게 하며, 기강을 세워야 함을 주장하였다. 新法 반대론을 주장하던 蘇軾은, '烏臺詩案'사건으로 인하여 詩文의 내용이 新法 諷刺, 조정 우롱, 황제 비판 등을 하였다는 御史臺의 심판으로 탄핵되어 구금되었다. 蘇軾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司馬光 등의 구명운동, 神宗과 王安石의 배려 등으로 석방되어 黃州團練副使로 貶謫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王安石과 蘇軾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고 하겠다. 이후에도 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는데, 특히 王安石이 《三經新義》와 《字說》를 修撰한 것에 대하여 蘇軾은 천하 사람들을 하나의 사상으로 묶으려고 한다면서 비판을 가하였다. 또한 章句와 聲病에 의한 進士科의 선발 방식과 墨義와 帖經에 의한 明經科의 선발 방식 등의 불합리한 과거제도를, 經義와 論策에 의한 선발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王安石의 과거제도 개혁에 대하여 蘇軾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王安石의 과거제도 개혁 주장은 시대적 요청이며 타당한 것이었으나, 사상적 통일을 위해 《三經新義》와 《字說》를 修撰한 것은 蘇軾의 비판처럼 사상의 자유를 도외시한 발상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詩賦로서 선발하는 제도를 經義와 論策으로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詩賦로서 선발하는 제

도가 적합하다고 입장을 바꾼 蘇軾의 일관성없는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蘇軾은 '烏臺詩案'으로 黃州로 貶謫된 이후에도 보수파와 개혁파가 대립하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惠州·儋州·海南島 등으로 유배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蘇軾이 新法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黃州 流配 후에 新法을 공격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한 적이 있고, 哲宗대에 司馬光이 집권하여 新法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할 때도, 蘇軾은 免役法 등 新法 중 타당한 정책은 현행대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王安石과 蘇軾은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王安石이 政界를 은퇴한 晩년에는 文友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왕래하였다. 蘇軾은 元豐 7년(48세), 黃州에 貶謫되어 있다가 汝州 團練副使로 진출하던 중 金陵에서 王安石(64세)을 만나서, 같이 鍾山을 거닐며 담소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시를 次韻하여 唱和하며 서로 상대방의 文才를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서신을 주고 받으며 진솔한 정감을 나누었으며, 서로 지척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며 餘生을 같이할 수 있기를 고대하였던 것이다. 王安石이 哲宗 元祐 元年(1086), 세상을 떠나자, 이에 中書舍人인 蘇軾이 〈王安石贈太傅制〉를 起草하였는데, 이 글에서 蘇軾은 王安石의 생전의 명성·학문·지혜·변론·글·행동과 정치적 업적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였다.

王安石과 蘇軾은 정치적으로는 당시 黨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혁파 보수라는 상반된 입장에서 대립하였다. 그러나 王安石의 晩년에는 양인은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둘 사이의 깊은 골을 극복하고, 文友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政敵을 포용한 양인이야말로 北宋 政界와 文壇의 걸출한 인물임이 틀림없다.

〈參考文獻〉

- 李之亮 箋注, 《王荊公文集箋注》, 巴蜀書社, 2005.
 李之亮 補箋, 《王荊公詩注補箋》, 巴蜀書社, 2002.
 《蘇東坡全集》, 河洛圖書出版社, 1975.
 東一夫, 《王安石事典》, 國書刊行會, 1980.
 東一夫, 《王安石新法の研究》, 風間書房, 1970.

- 劉乃昌·高洪奎,《王安石詩文編年選析》,山東教育出版社,1992.
- 荒木敏一,《宋代科舉制度研究》,東洋史研究會,1980.
- 蔡上翔,《王荊公年譜考略》,洪氏出版社,1975.
- 沈勤松,《北宋文人與黨爭》,人民出版社,1998.
- 湯江浩,《王安石 勇進人生》,長江文藝出版社,1999.
- 王鳳岑,《王安石人才思想論稿》,遼寧大學出版社,1990.
- 蔡上翔,《王荊公年譜考略》,洪氏出版社,1975.
- 陳植鐸,《北宋文化史述論》,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2.
- 王水照 著,曹圭百 譯,《중국의 문호 소동파》,월인출판사,2001.
- 柳種睦 譯註,《蘇軾詩集》,서울대학교 출판부,2005.
- 金炳愛 譯,《마음 속의 대나무》,태학사,2002.
- 柳瑩杓,《王安石詩歌研究》,서울대 博士學位論文,1992.
- 朴魯玟,《蘇軾散文研究》,誠信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1996.
- 申鉉錫,《東坡詞研究》,全南大學校,博士學位論文,1991.
- 曹圭百,《蘇軾詩研究》,成均館大學校,1996.
- 拙著,《王安石 經世文學 研究》,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1995.
- 文洋奧,《北宋代 鹽專賣商人의 仲介商業 活動》,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1987.
- 劉乃昌,〈蘇軾同王安石的交往〉,《東北師大學報》,1981.
- 閻笑非,〈試談蘇軾與王安石的關係〉,《齊齊哈爾師範學院學報》,1990.
- 權鐘鐘,〈政治的書畧에 따른 蘇軾의 文學生涯 疎考〉,영남중국어문학회,《中國語文學》,1986.
- 禹垸浩,〈蘇東坡의 政治社會諷刺詩 研究〉,한국중어중문학회,《中語中文學》,1995.
- 李鴻鎮,〈蘇軾詩 研究〉,영남중국어문학회,《中國語文學》,1996.
- 金玉蘭,〈소동파 우언의 지평들〉,중국어문논역학회,《中國語文論譯總刊》,2009.

〈中文提要〉

王安石和蘇軾都是北宋朝著名的政治家,同時也是傑出的文學家。在新法派燈臺,王安石大張旗鼓地進行新法時,蘇軾連接上書反對新法。由於一方面蘇軾對於新法的激烈批評,無形中助長了保守派的聲勢,一方面新法之始,輿論紛然。王安石對於反對意見也不暇一一詳察和辨析,只好義無反顧地奮力推行。蘇軾對新法基本採取了三種態度,一乃拒不執行不便之法,二乃推行便民有利之法,三乃以詩文諷諭新法之失。蘇軾還只是針對新法及其弊端進行一些公開的批評和指責,并未對王安石惡毒之進行人身攻擊。蘇軾有〈湖州謝表〉,其中有數語刺痛了當時的新進

人物, 激成製造‘烏臺詩案’的導火索. 當朝新黨一幫人誣陷蘇軾寫詩攻擊朝廷, 於是蘇軾逮捕入獄. 這時, 王安石已經罷相, 因此對烏臺詩案沒有直接的責任, 但蘇軾畢竟是因爲反對新法而罹禍的, 特別是, 迫害蘇軾的這伙人如李定和舒亶都是王安石一手提拔起來的新黨人物, 因而王安石對這件詩案不能不給予相當的關注.

王安石同蘇軾雖然在政治見解上存在分歧, 但在私人關係上却保持着友誼, 尤其晚年雙方相得甚歡, 在文章學術上更是彼此十分傾服的. 元豐七年, 蘇軾由黃州團練副使, 改授汝州團練副使, 蘇軾經過金陵, 專門拜見了王安石, 同遊各寺廟名勝, 談詩說佛, 唱和頗多. 王安石甚至勸蘇軾卜宅鍾山, 與他結隣而居. 在此以前蘇軾與王安石因爭新法, 頗多分歧, 而今二人處境已完全不同, 經過長談, 蘇軾已瞭解王安石當初之用心, 并得知一些聞所未聞之內情, 所以二人思想已溝通, 感情更爲融洽, 在此別離之際, 蘇軾已悵然不捨矣. 蘇軾離開金陵後, 二人都眷眷於懷. 元豐八年神宗崩, 哲宗即位. 司馬光爲門下侍郎, 請罷一切新法. 此時蘇軾因主張對新法區別對代而與昔日同黨司馬光發生嚴重衝突. 王安石去世後, 蘇軾代擬了一份勅書〈王安石贈太傅制〉, 對王安石的道德和文章給予了高度的估價. 王安石同蘇軾的關係, 有牴牾、有接近, 情況是較爲複雜曲折的, 他門在對新法改革問題上存在着分歧和爭論, 但未由此演爲互相攻擊, 却王安石晚年保持了友誼, 并能在學術、文章上相互磨礪和推重.

關鍵詞：王安石, 蘇軾, 政治, 新法, 烏臺詩案, 文學, 友誼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0일에 접수되어 2009년 12월 0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